



익산부천중학교

<https://school.jbedu.kr/jb-buchon/>

창의적 학생 · 건강한 학생 · 정의로운 학생

샘글소식

IKSAN Bucheon middle school News

- 펴낸곳: 익산부천중학교
- 펴낸이: 교장 김영극
- 엮은이: 교사 김수연
- 발행일: 2021.12.28

■ 주소. 54567 전북 익산시 동서로 524(어양동 7-1) ■ 교무실. 839-9151 ■ 행정실. 839-9123

## 도전하는 마음이 아름답다.

성공적인 미래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 부가 대물림 되고 그로 인해 미래가 정해진다고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다. 부모의 도움은 단지 다른 사람보다 고작 한 걸음 앞서서 출발하게 할 뿐이다. 아이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가지라는 것이다. 이미 주어진 것에 안주하는 것보다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용기 있게 도전하고 그 길을 꾸준히 걸어 나가는 일이 중요하다. 도전에 따르는 실패가 두렵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잘 알려진 에디슨은 수천 번의 실패를 거듭한 끝에 필라멘트를 적용한 백열 전구를 발명하여 전기의 시대를 열 수 있었다. 이 사례와 같이 실패는 성공을 위한 과정이며 눈부신 성공을 위해선 실패를 경험해야만 한다. 4차 산업 시대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 아이들은 교장 김영극 새로운 분야의 지속적인 개척과 맞물려 다양한 직업군이 생겨나는 시대를 살아갈 것이다. 취업난에 자신의 자리는 없다며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장점을 살려 새로운 직업군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도전하면 자신이 원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개천에서 용 나는 시대는 지났다'면서 자신에게 처해진 환경을 탓하며 무기력하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에 도전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교장 김영극

## 인터넷 검색능력 보다 사색의 능력을 키워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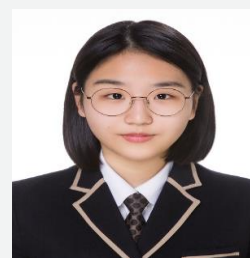
우리 아이들은 휴대폰과 미디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유튜브나 인터넷에 떠도는 사건, 사고에 대한 질문을 아빠에게 합니다. "아빠 이런 일이 있다고 하네, 너무 킹 받아, 어쩔 이럴 수 있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흥분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도 같이 동조해줬으면 하는 표정과 행동을 하지요. 그러면 저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디에서 그런 걸 알게 되었니?" 하고요. 그러면 대부분이 인터넷 또는 유튜브에서 나오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 중엔 사실인 것도 있지만 거짓인 것과 개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과장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정의로운 사회,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 필요한 게 사색(思索: 어떤 것에 대하여 깊이 헤아려 생각함)입니다. 어느 하나의 매체만 보고, 누군가의 얘기만 듣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매체와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사색을 통해 올바른 판단과 행동을 하길 바랍니다. 검색은 쉽지만 사색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색을 통해 한 단계 성장하는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주체적이고 행복한 삶을 바라며 인사말을 마칩니다.



운영위원장 이 하 늘

## 매일의 주인공들에게

2021년을 맞이한 날이 어제 같은데, 벌써 2022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2021년은 어떤 해였나요? 누군가에게는 고민이 많았을 해였을 수도,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잊지 못할 즐거운 일들이 많았던 해였을 수도 있겠습니다. 각자 다 다른 이름을 붙인 2021년이겠지만, 한 해라는 무대 위 주인공이자 감독이었던 여러분들에게 수고했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한 해를 자신의 무대로 만드는 것은 분명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살아가면서 마주치게 되는 선택의 순간은 굉장히 많고, 자신의 의지와는 다른 일을 하게 될 수도 있으며, 원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일도 많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는 자신이 그 난관을 이겨낼 만한 힘을 가지고 있으며, 더 발전해 나갈 길이 있다는 것을 확인 시켜주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멈춰 있는 인생은 없고, 시간은 항상 지나가고 있습니다. 흘러가는 시간 속 힘든 순간은 반드시 찾아오며, 그 순간들은 일시 정지 없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한 하나씩 흘러갈 것입니다. 도전했다는 것 자체로 그 시간에 충실하게 무언가를 하려고 했으며 자신의 의지로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했다는 점이 여러분의 경험을 값지게 만들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자신 안에 숨겨진 행복을 찾으려 무엇이든 적어내고 그려내 보며, 도전해 보세요. 한 해 동안 자신들의 무대 위에서 주인공이었던 모든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맞이하게 될 2022년엔 더 멋진 무대를 펼칠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학생 회장 김 민 경

## 성공에 대한 인내

성공한 사람들은 말합니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라고. 성공한 사람들은 말합니다. 구체적인 꿈을 꾸라고. 성공한 사람들은 말합니다. 자신의 가능성을 믿으라고. 성공한 사람들은 말합니다.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성공한 사람들은 말합니다. 책을 읽으라고. 책을 읽는다고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책을 읽는다고. 많은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에 대해 말합니다. 학생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성공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위의 성공한 사람들의 말처럼 목표를 가지고 꿈과 희망을 계획하며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손에서 책을 놓지 않는 삶일까요? 아니면 그냥 하루 하루를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삶일까요?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사는 삶일까요?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삶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우리 부천중 학생 여러분이 이 글을 읽으면서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닌, 성공한 사람들의 말이 아닌, 진심으로 나의 미래와 행복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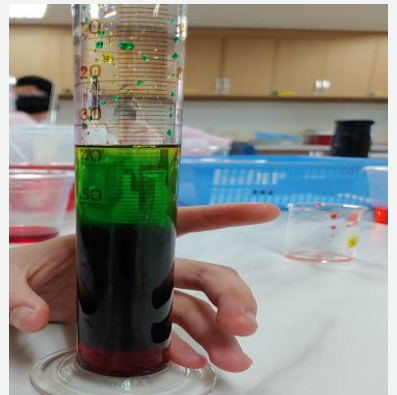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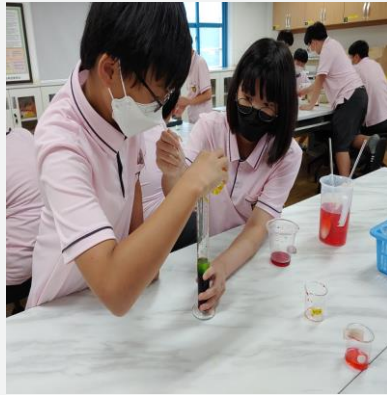


학부모 회장 이 덕 희



## 과학

올 해 우리 학교에서 여러 과학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과학 캠프가 진행되었습니다. 이공계 과학 캠프, 꿈·창의과학 캠프에서 학생들은 평소 하기 어려운 다양한 과학 관련 활동이 진행되었습니다. 창의 과학 캠프에서는 스파게티 면으로 탑 쌓기, 동력 장치와 평형수를 이용해 보트 만들기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1학년 자유학기 활동으로 부력이 큰 배 만들기, 설탕 총 쌓기 등이 시행되었고 과학 동아리 활동으로 미니 진공 청소기 만들기, 과학 도서 읽기 등이 이루어 졌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과학 교육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프로그램, 캠프, 행사가 주최됩니다. 학생들은 이러한 활동을 통해 과학적 상상력과 탐구심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실험은 과학 실험 안전 교육을 철저히 받은 뒤 시행되었습니다.)



## 학생회 활동

학생회에서는 학교의 다양한 문제에 관심을 갖고 회의를 주최하는 것 뿐 아니라 다양한 행사를 열었습니다. 5월 14일 스승의 날을 맞아 스승의 날 편지쓰기 행사, 6월21일~21일 너나들이 사진관 행사를 주최하여 학생들이 친구들과 함께 사진을 찍고 인화하여 추억을 쌓았습니다. 또한 학생회는 페이스북 페이지 '부천중학교 대신 전해드립니다'를 운영하여 학생들이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12월11일부터 '2021 부천중 E스포츠 대회', 12월22일 깜짝 단합대회를 생중계하여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학교 생활에서 소속감을 높일 수 있었고, 적극적인 태도를 기를 수 있었습니다.



## 백일장

지난 5월에 시행되었던 백일장 수상작을 발표합니다. 다양한 작품이 상을 수상했지만 운문 중 짧고 인상적인 시 한 편을 소개합니다. 1학년 이지희 학생의 시입니다.

꿈

달린다  
멈춘다  
생각해본다  
다시 달린다

심사평 (김수연) : 이 학생은 '꿈'을 주제로 선택하였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꿈을 주제로 선택했습니다. 꿈을 향해 나아가는 일을 '달리는 행위'에 비유하고 있으며 꾸밈없이 담담한 어조로 시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화자는 꿈을 향해 달리는 행위를 하다가 문득 멈춥니다. 움직임의 변화가 여운과 생각의 틈을 만들어 냅니다. 시에서 '생각해본다'라는 행은 화자가 꿈과 미래에 대해 고민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무엇을 위해, 어디를 향해 달리는지 '달리는 일'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는 부분입니다. 달리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꾸준히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후 화자는 '다시 달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민을 통해 찾은 꿈이 멈춰버린 화자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시의 급한 호흡은 꿈에 대한 고민을 길게 하지 못하였음에도 무언가를 향해 달려야만 하는 여유없는 현실을 떠오르게도 합니다. 간결하지만 꿈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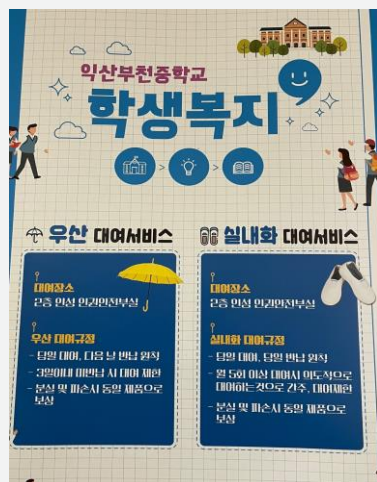
## 진로

자신을 알아가고 자신의 미래를 설계한다는 것은 무척 설레면서도 두려운 일일 것입니다. 학교 진로 시간에는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주고 자신을 이해하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학교에서는 다양한 진로활동이 진행되었습니다. 학기 초 4월 한 달간 각 학년 별로 청소년 강점 검사, 성격 유형 검사, 직업 가치관 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을 이해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3~12월에 걸쳐 '나만의 책' 만들기 동아리 활동, 9월 각 학년 별로 토론과 의사소통 방식 이해 활동, 자신의 성격 이해 활동, 직업인 초청 특강과 직업 체험 활동이 운영되었습니다. 학부모 대상으로는 고교학점제 진로 진학 특강이 진행되었습니다. 12월 기말 시험이 끝난 뒤 평소 하기 어려운 진로 체험 활동이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12월13-23일 3학년 직업 특강, 직업 체험, 역량 강화 체험, 3D펜 체험 활동이 진행되었고 12월16일 2학년은역량 강화 활동, 12/9-10일 진로 캠프가 운영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자신에 대해 진지하게 탐색하고 자신의 진로를 보다 적극적으로 설계하고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학생 복지

우리 학교 인권인권 안전부에서는 학생들의 안전과 인권을 위해 여러 어울림 프로그램, 교육프로그램 및 학생 복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이용할 수 있는 학생의 복지로는 우산 대여, 실내화 대여, 분실물 보관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하는 데 불편함을 감소하고 보다 안정적인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 2022 학생회장단 선거



(왼쪽부터 박주하, 심정민, 김하랑)

2022 학생회장단 선거가 진행되었습니다. 각 후보들은 후보 등록 절차를 거친 뒤 12월 13일 부터 15일까지 3일 간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선거 포스터 게시 및 선거 운동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12월 17일 자율활동 시간에 시행된 선거의 결과, 2022년 학생회장은 심정민(2-4) 학생이, 학생 부회장은 박주하(2-2), 김하랑(1-5) 학생이 당선되었습니다. 당선된 학생회 임원들은 앞으로 학생들을 대표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민주적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도력을 갖춘 임원이 될 것임을 다짐했으며 학생들은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의 절차를 경험하고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참여와 책임에 대한 진지한 태도를 기를 수 있었습니다.



## 안전교육

우리 학교에서는 다양한 안전 교육이 시행됩니다. 수시로 안전 관련 안내문이 배부되고, 소방 대피 훈련, 119안전 체험관 방문, 과학 실험 안전 교육 등 각종 안전과 관련된 교육이 진행됩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비교적 소규모로 시행되었으나 교내 각종 안전 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안전에 대해 보다 경각심을 가지고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안전 체험에 다녀온 2학년 4반 심정민 학생의 소감문 일부를 소개합니다.

오늘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119 안전 체험을 가는 날이다. 119 안전 체험관에서 일상 생활에서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많은 재난·재해와 일상 생활 사고를 체험하고 그에 따른 대처 방법을 실제 상황처럼 배울 수 있었다. 완강기, 자동차 전복, 교통 사고, 건물 붕괴, 화재 및 암전, 심폐 소생술, 비상용 미끄럼틀 등의 체험을 했다. 아마 우리들은 살면서 이런 상황에 처한 경험이 별로 없고 대중 매체를 통해서 접해 본 적이 많을 것이다. 그렇기에 안전에 둔감해지고 실제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대처하지 못 해서 위험해질 수 있다. 119 안전 체험은 이런 우리들에게 ‘안전’에 대해 한번 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게 해 준 계기가 된 것 같아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다.



## 도서관

코로나의 여파로 여러 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 도서관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그로 인해 대규모 행사는 할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여러분의 꾸준한 독서를 위해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는 꾸준히 진행되어왔습니다. 7월9일~16일 도서실 운영 체험, 7월12일~13일 독서 퀴즈 행사, 10월20~22일 독후감 대회, 책꾸러미 지원사업, 독서 일주 빙고 채우기, 1학년 진로 독서, 1~3학년 국어 수업과 연계한 지속적 묵독(SSR) 활동, 2층 홈베이스 북카페 조성 등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도서관에 오는 즐거움을 찾을 수 있었고 독서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을 키우고 꾸준히 독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키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체육

올해에는 코로나로 인해 체육대회가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학교 폭력 예방 어울림 프로그램의 차원에서 각 학년에서 종목별 리그전이 진행되었습니다. 경기가 진행되면서 학년의 전체 인원이 하나되는 마음으로 응원하는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우승을 위해 연습하는 열띤 연습의 열기가 올림픽을 방불케했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각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되었으나 3학년 경기는 실시간 중개되어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1학년은 빅발리볼과 피구, 2학년은 족구, 피구, 줄넘기 종목으로 치루어졌습니다. 3학년은 배구 대회가 치루어졌습니다. 각 학년에서 1학년은 1-6반이 종합 우승을 차지하였고, 2학년에서는 2-1반이 종합 우승을, 3학년에서는 3-3반이 종합 우승을 차지하였습니다.



각 1~3위 학급에는 상품이 전달되었습니다. 이러한 체육 행사를 통해 학생들은 기초체력을 증진하고 민주 시민 자질을 함양했으며, 학급 내 친구들과 서로를 존중하고 응원하며 협동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현장체험학습

작년과 달리 올해는 코로나의 여파에도 전면 등교를 시행했습니다. 그로 인해 달했던 체험의 기회와 소통의 기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설문 조사 결과 숙박과 장거리 이동이 동반되는 수련활동과 수학여행에는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그럼에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는 조건 하에 현장 학습은 추진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3학년은 11월 9일 여수로 현장체험학습을 떠났습니다, 아쿠아플라넷 관람, 돌산 공원 방문 및 케이블카 탑승 활동을 통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1학년과 2학년은 각각 11월 3일과 5일 익산 시내의 신흥 근린 공원 및 중앙 체육공원을 다녀왔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고장 익산의 생태와 자연을 체험하고 친구들과, 선생님과 좋은 기억을 쌓은 시간이었습니다. 학생들은 현장체험학습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기르고 사회적 규범을 배우고 준수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1-6 강서운 학생의 소감문 일부입니다.

가까운 곳으로의 현장 체험 학습은 기대가 전혀 되지 않을 줄 알았지만 사복을 입고 간식을 챙기니 금방 신이 났다. 줄을 지어 걸어간 첫 번째 장소는 신흥 근린 공원이었다. 꽃으로 예쁘게 꾸며진 정원 느낌이 물씬 났다. 안으로 들어가니 핑크 물리가 나를 설레게 했다. 숲을 들어서자 마스크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는 숲 냄새가 반가웠다. 요즘 항상 학교 끝나면 차 타고 학원가고 다시 차 타고 집에 오니 많이 걸지도 않고 운동도 하지 않았는데 산책로를 따라 걸으니 상쾌하고 운동도 되는 것 같아 좋았다. 그 다음으로 중앙체육공원에 갔다. 시간이 많이 주어져서 여유롭게 놀 수 있었다. 아직 14살이어서 그런가 나는 국화가 그리 예뻐 보이지 않았지만 옆에 계신 어르신들은 꽃을 보며 예쁘다 예쁘다 하시며 하염없이 바라보시고 계셨다. 나도 언젠가 어르신들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나이가 오겠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맑게 하모니처럼 울려 퍼졌다. 가까운 장소로의 현장 체험이라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 코로나로 인해 행사가 어려운 시점에서 속상한 마음을 달래는데 충분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 교육복지

교육 복지란 교육 기회, 교육 과정, 교육 결과의 격차를 줄이고 학생의 교육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학교와 지역의 교육 공동체를 구축하고 학생에게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학교의 교육복지는 학교,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가 푸르고 아름다운 숲처럼 기대어 실 수 있는 '꿈꾸는 숲'을 만드는 것을 추구합니다. 올해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습니다.진행된 프로그램으로는 주의 집중력 향상 프로그램, 학습 심리 프로그램, 자아 성장 프로그램, 요리 활동, 지역 사회 봉사 활동 등이 있으며 학기 초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한 심리 검사, 학급 프로그램, 사제동행, 가족상담 등이 운영되었습니다.



## 크리스마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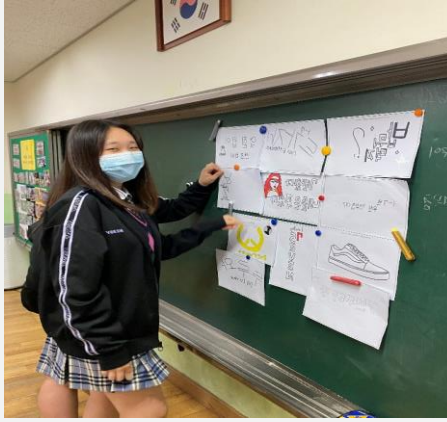
올 해 연말 크리스마스를 맞아 여러 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인성인권안전부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 '모두의 산타' 행사에서는 학생들은 위한 행운의 뽑기, 크리스마스 카드 쓰기가 진행되었고, 1학년에서는 '크리스마스' 주제통합수업 및 크리스마스 케이크 만들기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1층 현관에 크리스마스트리를 전시하고, 등교 시간에 캐롤이 울려 퍼졌으며, 크리스마스 선물을 나눠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 및 학교 구성원의 코로나에 지친 마음을 달래고 친구들과 좋은 추억을 만드는 시간이 되었습니다.(모든 활동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이루어졌습니다.)





## 자유학기

올 해에도 1학년은 자유 학기가 시행되었습니다. 1학기 51시간, 2학기 170시간이 시행되었으며, 1학기에는 국어 연계 주제활동, 예술체육, 동아리가 시행되었고, 2학기에는 주제 선택 2일, 예술 체육 활동, 진로 탐색 활동이 각 1기, 2기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자유 학기 활동은 블록 타임제로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자유학기 활동으로 다양한 교과가 연계하여 '코로나19', '독도의 날', '크리스마스' 관련 주제 통합 수업이 이루어졌습니다. 2,3학년 고사 기간동안에는 진로 활동, 직업 체험, 캠페인 활동, 홀로그램 캠프, 자기주도 학습 캠프, 패션 창업 체험, 나만의 책 만들기, 도시 체험 활동 등 특별한 자유학기 활동이 시행되었습니다. 다양한 활동과 체험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발견할 수 있었고, 자신의 꿈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여러 활동을 수행하면서 자신감과 끈기를 기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시설 점검

코로나로 인해 많은 행사는 취소되었지만, 그로 인해 학교의 많은 시설들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습니다. 그 성과로 교실 및 특별실 칠판 교체, 학생 신발 보관을 위한 중앙 현관 학생용 신발장 설치, 교실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 교체, 학생용 노트북 구비, 급식실 칸막이 설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노후화된 과학실을 현대화 하여 학생들의 더욱 질 높은 교육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이후 학생들을 위한 시설 설비 및 각종 시설 정비를 보다 다양하게 진행하기 위해 계획 중입니다. 새롭게 교체한 시설을 소개합니다.



## 즐거로운 방학생활

[방학식]

▶ 2021.12.29 (수)

[개학식]

▶ 2022.2.4 (금)

▶ 등교시간 8 : 40

▶ 준비물

: 정상 수업 준비하기

## 방학중 코로나 예방 수칙

1. 마스크 반드시 착용하기
2. 밀접.밀접, 밀폐된 곳에서 거리두기
3. 30초 손 씻기, 옷소매로 막고 기침
4. 자주 환기하기
5. 아프면 검사 받고 타인과 접촉 않기
6. 모임 자제하기